

임실군, 에너지자립화 앞장선다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 공모사업에 신평면 대리마을 선정

임실군이 2017년 신재생에너지 마을 단위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태양광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11일 임실군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 공모에 신평면 대리마을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단 4개 마을로 임실군 신평면 대리마을이 선정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마을단위지원사업은 동일 행정구역 내 10가구 이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설비 등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사업으로 마을 전체 가구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평면 대리마을은 2013년도 29가구가 선정돼 2억500만원으로 1차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에도 2억1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역을 보면 태양광 12가구 36Kw, 태양열 11가구 202.74㎡를 각각 설치한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절차를 진행, 태양광은 60일 이내, 태양열은 90일 이내에 사업승인을 마치고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태양열 등의 준비를 설치하면 자가 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기료 부담이 사실상

없어지는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임실군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그린빌리지 5개마을 65가구과 개별주택 36가구에 사업비 10억2천9백만원 중 6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정에너지 복지실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주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화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택지원사업 활성화와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서 화합 한마당 잔치 열린다

14일 순창 군민의날 행사

순창군민들의 화합한마당 잔치인 제5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가 오는 14일 일품공민일원에서 뜨거운 막을 열린다.

특히 이번 순창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체육대회와 연계 추진해 잔치가 군민이 참여해 즐기는 한마당 잔치와 군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4일 오전 11시 주부싸이클대회를 시작으로 순창읍 일품공민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육천줄다리기(고 싸움) 시가행렬은 순창읍과 남계면으로 나눠 500여명의 행렬단이 한 시간 가량 순창읍 시가지를 행진하게 된다. 농악단과 휘타대가 흥을 돋우고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해 행사의 백미를 장식한다. 고싸움 시연은 일품공민에서 진행

된다. 기념식에서는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이 진행되며 배일호, 정해진, 오로라 등 인기가 수들이 출연하는 군민화합 음악회를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릴 계획이다.

군민의 날 열기는 순창 군민 체육대회로 이어진다.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주민 3,000명이 참여한다. 축구,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단체줄넘기, 마라톤 등 16개의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군은 스포츠 정신을 통해 각 읍면의 화합을 넘어 전체 군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마을기업고도 기업 선정

순창군 하마마을영농조합(대표 양양남)과 순창쌀엿영농조합(대표 임종우)이 안정적 자립경영과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2017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하마마을영농조합과 순창쌀엿영농조합 2개의 마을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사업성과 공동체성이 확보된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및 장비구축,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마을기업 간 연계·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읍, 생활쓰레기 배출 캠페인

임실읍사무소는 최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가 전주시 관역소각자원화센터로 반입됨에 따라 적정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군청 및 읍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지역민 등 60여명이 참여해 팸플릿을 배부하고 차량빙승과 함께 가두 행진을 실시했다.

앞으로 1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운영

13일 부터 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접수

순창군은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자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5,0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관에 방문하거나 팩스 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

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통지를 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하여 오는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성희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내달 2일까지 접수

임실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14만9,882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

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을 직접 작성해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자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제 맞아 차선도색 추진

남원시는 제87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요천로의 9개 노선의 7.7km에 대하여 도로차선 재도색 및 도로명 표시를 통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는 국도·지방도와 시·군도·농어촌도로 등 총 591.42km이며, 이 도로에 대해 매년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차선도색은 춘향제 행사구간과 외부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 표시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남원을 안내하는 주요 시설물이 될 도로 차선 및 노면표시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퇴색한 차선과 차랑통행 많은 도로,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고회도(선명한) 도색을 통하여 야간과 우천시에 잘 보이도록

하고, 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주·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노면표시에는 춘향제 방문객 및 차량 운전자의 길찾기 편리성과 도로명 주소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남원시가지 19개 주요 도로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도로명주소 안착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교통 관리를 위하여 읍·면 도로차선도색 및 노면표시를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신호등정비 및 불량표지판 등 정비를 위해 2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진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자봉센터, 자원봉사 협약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중철)는 11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는 남원시드림스타트,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남원경찰서(여성청소년과)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드림스타트는 또, 기관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피해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여름행이나 가을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트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입니다.

임실군